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11월 23일 (제 1333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후회도 경험이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권천국 목사님이 을지로에 새로 꾸민 사무실을 가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정동성 목사를 통해 전 하셨다. 나는 즉시 정동성 목사에게 ‘내일 모시고 오라’고 했다. 사실 내일은 중요한 사전 약속이 있었던 터였지만, 나는 정동성 목사에게 가서 잘 모시고 오라고 당부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한 데는 연유가 있다. 20여 년 전인가,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 하셔서 내게 전화를 했다.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 한 번만 병원에 와 달라는 전 화였다. 그때 나는 기도원에 있었던 터라, 권사님에게 서울 올라가는 길에 들리겠다 고, 기도원에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전화한 다음 날 돌아가 신 것 아닌가. 아찔씨! 나는 얼마나 회개하 며 울었는지 모른다. 기도원에서 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을 못 들어준 것이니... 나는 다시 이런 후회를 안 하리라 다짐했 다. 그래서 권 목사님의 요청을 미루지 않 고 바로 시행한 것이다. 연세가 많으신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다. 후회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리라 는 미래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후회는 아 픈 경험이지만, 미래의 자양분이 되기도 한 다. 다윗을 보자. 그는 남의 아내를 취하려 고 온갖 술수를 다 썼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호되게 야단치셨고, 징계하셨다. 다윗은 학처럼 비둘기처럼 울 며 회개하고 후회했다. 그 사건은 그에게 아픈 경험이었지만, 미래의 자양분이 되었 다. 하여 늙어 동녀를 취할 수 있음에도 그 는 다시 그 일을 행치 않았다.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했다. 닭이 세 번 울자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후회했다. 주님은 그런 그를 찾아와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는 다시 후회하지 않으 려고 목숨까지 버리며 주를 따랐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후회했으나 일어서지 못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지 않았던가. 계곡 없는 산이 없듯 후회 없는 삶은 없다. 다만 후회할 일을 했을 때 깨달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개돼지처럼 쫓겨놔도 다시 그 자리에 눕는 자가 되지 말고, 후회가 더 나은 미래가 되는 발판이 되게 하자.

멕시코 가르시아 전도집회

다녀오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또 멕시코(Mexico) 가요?”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제가 딱히 설명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또 멕 시코 갑니다.”가 다입니다. 왜냐하면 목 사님의 해외선교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 에 순종하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해외선교를 다니신 지 35년이 넘지만, 단 한 번도 미리 선교지역을 결 정하고, 미리 탐색하고 준비하여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 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마 게도냐에서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여 아 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발길을 돌린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은 항상 집회 요 청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

(행16:6~10). 한번은 엘살바도르(El Salvador)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 는데, 그들은 목사님을 초청해놓고도 목 사님이 진짜로 오실 줄은 몰랐다고 놀라 움을 표했습니다. 반대로 베트남(Vietnam) 같은 경우는 베 트남의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와 베트남 의 주요 도시 호치민(Hồ Chí Minh)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자고 했었지만, 꿈의 계 시가 좋지 않아 가지지 않았지요. 따라서 왜 그렇게 멕시코를 자주 가시냐는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답은 오직 하 나님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멕시코 가르시아 (Garcia) 방문으로 지난 2001년부터 24 년 동안 멕시코를 47회 방문하여 54개 도시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실로 놀

마치고 목사님은 몬테레이에 들러 마리오 목사는 물론 몬테레이 지역 목회자들 을 초청하여 만찬을 열고 가르시아 집회 에 대해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마리오 목 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해줄 것을 당 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신 집회일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하며 준비 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 다는 것을 35년 해외선교를 통해 절실 히 깨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몬 페레이 목회자들은 목사님의 당부에 귀 를 기울이고 가슴이 뜨거워져서는 이구 동성으로 마리오 목사를 도와 열심히 전 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노량진 교육관에 모 여 기도한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나 올해 마지막 집회로서 대미를 장식해주리라 확신합니다.



이 있다고 판단이 서면 그곳이 어디든지 거리 불문하고 달려가셨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 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 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 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 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 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 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 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운 일은 맞습니다. 한 나라를 이렇게 도 많이 다니기가 예사로운 일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멕시코가 워낙 큰 나라이긴 하지만 정말 동서남북으로 안 가본 도시 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은 그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쉬지 않고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멕 시코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 다는 것입니다. 이번 멕시코 가르시아 집회는 작년 몬페 레이(Monterrey) 집회 때 만난 마리오 (Mario) 목사가 주관하는 집회입니다. 지 난 4월 쾰띠요(Salttillo) 집회를 성황리에

‘성도들의 기도를 타고 달린다’는 목사님 의 말씀은 그만큼 성도들의 합심기도가 절실함을 예뉘러 표현하시는 것이라 생 각합니다. 늘 강조하시듯이 하나님을 움 직이는 기도 이상 위대하고도 강력한 힘 이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 며 기도했던 안디옥 교인들처럼, 멕시코 가르시아에서 올해 마지막 해외집회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돌아오실 때 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은택 목사**

멕시코 가르시아 집회

* 날짜 : 2025년 11월 19일(수)~28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4:6~13)

수직적, 수평적 감사(感謝)를 알라

감사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직적 감사요, 하나는 가족과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는 수평적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감사에 능하십니까?

사실 ‘~ 때문에 감사’는 누구나 잘합니다. 취직이 돼서,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집을 주셔서, 배필을 주셔서, 병이 나아서..., 이 감사는 누구든 합니다. ‘그래서’ 감사거든요. 초보적인 감사지요.

감사는 인격의 척도요 성공의 열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그래서 감사’, ‘~ 때문에 감사’만이 아니라 ‘~ 불구하고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범사(凡事)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라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만사(萬事)가, 난사(難事)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이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식사 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아시고 이들에게 먹일 것이 뭐가 있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사먹게 하세요.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것이라곤 고작 어린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라며 투덜거립니다. 대책이 없으니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가 뭐니까? 축사(祝謝)란 ‘빌 축(祝)’과 ‘사례할 사(謝)’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11:41).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앞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

라 먼저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낳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더욱 그 틀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처럼 어려울 때, 난감할 때, 힘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렘3:17~18).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하게 하셨으니 감사해야 하고, 홍해를 갈라주셨으니 감사해야 하고, 40년 동안 웃이나 신발이 낡지 않았고, 먹을 것이 넘쳤으니 감사해야 하지만, 그들은 ‘없다’, ‘힘들다’, ‘춥다’, ‘덥다’하며 늘 불평만 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전10:10).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서서 문둥병자 열 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만이 찾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사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17:19) 하셨습니다. 감사했을 뿐인데 그것이 ‘믿음’이라 하였고, 그 믿음이 사마리아인을 구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신약에서는 바울이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피난 중에도 확실히 한 믿음을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이란 칭호와 함께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주셨고, 늘도록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매 맞음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바울에게는 그가 그렇게도 바라던 상과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2:7). 목회 41년, 저도 누구 못지않게 억울한 일도 많았고 누명도 많이 쓴 지라 원망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의 씨를 뿌렸더니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세계를 교구화하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느 우편배달부가 오가는 길에 꽃씨를 뿌렸더니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지나가는 길이 온통 꽃길이 되었다지 않습니까? 그럼요, 꽃길을 걸으려면 꽃씨를 뿌리고, 감사 열매를 얻으려면 감

사의 씨를 뿌려야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종으로, 안내위원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써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나서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저 백번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굵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시69:30~31).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자보다 감사하는 성도를 더 기뻐하시니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제 수평적 감사를 볼까요? 수평적 감사의 첫째 대상은 부모입니다. 요즘 효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개 웃은 이것저것 사면서, 개는 유기농 음식을 먹이면서 부모에게는 어렵었습니다. 개똥은 치우면서 부모가 병들어 똥오줌 못 가리면 요양원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요양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며 키워주신 부모에게 감사해야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함이 마땅할진대 감사하면 하나님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렘6:3)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내에게도 “힘들지? 고마워.”라고 해보세요. 남편에게도 “돈 버느라 애쓰네.”라고 해보세요. 애들에게도 “고맙다. 잘 커줘서.” 해보세요. 가정에 꽃길이 열립니다. 아랫사람에게도 감사한다고 해보세요.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감사는 인격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면 존경을 받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대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롬16:3~4)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 거리를 주십니다. 수직적인 감사와 수평적인 감사를 잘하는 자, 인생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의 방부제요, 항암제요, 성장촉진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충분한 분산

투자에 관한 많은 글과 저서들은 고도로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권합니다. 그러나 사실 분산은 어떤 한 종류의 리스크를 다른 종류의 리스크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지요.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우리의 전반적인 리스크 수준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시에 우리의 잠재적 보상수준도 줄이게 됩니다.

과도한 분산은 평범한 실적만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찰리 멩거는 “분산은 여러분의 투자실적이 평균적인 투자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멩거는 “좋은 투자자는 찾기 어렵고, 따라서 소수의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 매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투자업계의 98%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없다면, 버핏과 멩거 같은 극단적인 집중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과도하지 않은 충분한 분산은 해야 하지요. 즉 집중되었지만, 리스크 노출은 다양화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중요합니다.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효율성(efficiency)은 일을 옳게 하는 것이고, 효과성(effectiveness)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투자에서 효과성은 옳은 주식을 고르는 것이고, 효율성은 자산 배분을 적절히 잘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주식(옳은 주식)은 누구라도 찾을 수 있지만, 훌륭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구별되는 것은 우수한 개별 종목 포지션 구축에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았다면, 자신의 삶을 유의미하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매수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훌륭한 아이디어/주식을 찾았다는 것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했느냐, 요컨대 최초의 투자 배분과 그 후의 추가매수(pyramiding, 상승하는 주식의 추가매수)를 어떻게 했느냐로 귀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의 빈도가 아니라 ‘빈도 · 이익의 규모’인 것이지요.

우리는 가장 단기간에 가능한 최고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가능한 가장 적은 리스크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관리가 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적극적인 리스크 부담이 현명한 것으로 오해될 때가 많은 강세장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복리 수익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투자 과정에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정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 여정이 끝나버릴 수도 있지요. 우리의 신앙 여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로를 분명하게 유지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철학과 투자 과정에 충실하여 인생에도, 투자에도 복리의 열매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 빛과 소금 ::

하나님은 언제 감동하실까?

최근 어린이집에서 둘째 아이의 영어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일정이 정해지자 우리 가족은 모두 걱정이 앞섰다. 둘째는 집에서 누구보다 활발하고 말도 많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수줍음이 많다. 매일 보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잘 못하고, 교회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모, 삼촌들이 이름을 불러도 내 뒤로 숨기 바쁘다. 그런 아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도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며 집에서 연습을 부탁하셨다. 고민 끝에 아이를 안고 기도해주며 이렇게 말했다.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자처럼 담대해.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이 넘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니 넌 할 수 있어!”

발표회 전날, 아이가 긴장하는 모습이 보여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첫째 아이와 발표회에 참석했다. 열 살인 언니도 긴장하고 걱정하는 눈치였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괜찮아. 잘할 거야.” 하며 다독였다.

드디어 발표가 시작되었다. 많은 학부모님들 앞에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 발표

를 했는데, 어떤 아이는 울며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오기도 했다. 그때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이 곁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는 실수 없이 영어 대사를 끝까지 잘 해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 “리허설 때보다 훨씬 목소리가 크고 무대 체질 같았다.”며 감동하셨고, 나 역시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아이에게 그 무대가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낸 모습이 참 기특하고 대견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동하시지 않을까?’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이번 일은 내게 그런 특별한 은혜로 다가왔다. 나 또한 우리 아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녀가 되고 싶다.

송지혜 집사

전도의 기쁨! 전도의 축복!



지난 서울 청년부 토요예배에서는 김정태 장로님이 강사로 나와 ‘전도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젊은이들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1988년 2월 9일, 셋째 동생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나에게 욕을 먹고 पि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4). 만약 동생이 나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야성을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야성은 복음 전파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빈부귀천, 젊은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전도에 매진한 장로님은 1992년 메인스타디움집회 때는

혼자 버스 7대를 대절해서 150명이라는 인원을 전도했고, 캠페들을 전도하는 등, 눈만 뜨면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환경, 직업, 학벌, 즉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지리 궁상이면 누가 우리를 따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전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노량진 교육관 건물의 가게 사장님들,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 지인들 가리지 않고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젊은이들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물질과 정성과 노력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쁜 소식, 새 소식, 복음을 전파하기 바랍니다.”

실제 이날 간증 집회에는 장로님이 전도한 수산시장 청년사장이 앉아 있었다. 장로님의 전도의 열매인 것이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청년들은 절치부심하고 나가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다음 주 예배에 새신자를 데리고 나왔다. 전도는 구호가 아닌 실천이다.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전도하여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보자! 전도, 하면 된다!

송현해 생도

:: 소망의 언덕 ::

예수님께 ‘착 감기는’ 인생

기도원 집회를 준비하던 중, 문득 손목 시계를 살펴보니 시곗줄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물 받은 새 가죽 시곗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꿔 차 보니 어찌나 뻣뻣하고 손목에 감기지 않던지, 오히려 손목만 아파서 결국 다시 포장해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곗줄이 꼭 필요했고, 기도원 집회 일정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뻣뻣한 새 시곗줄을 차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손목에 걸리고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서울에 돌아와 다시 보니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토록 뻣뻣하던 시곗줄이 제법 부드러워지고, 손목 모양에 맞게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목에 ‘착 감기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께 뻣뻣하고 불편한 존재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목에 착 감기는 부드럽고 순

한 존재일까?’

새 시곗줄이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언제까지나 딱딱하고 뻣뻣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손의 열과 움직임을 통해 점점 제 손목에 맞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착 감기는’ 관계를 맺을 때, 뻣뻣하던 우리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딱딱하던 마음이 온유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성경은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민12:3)고 말합니다. 그의 온유함은 단지 성격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뜻에 ‘착 감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 잘 맞는, 손에 익은 시곗줄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새것처럼 뻣뻣하고 손목을 아프게 하는 시곗줄입니까?

이현승 목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 참된 깨달음 ::

편안함의 습격

요즘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탐독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안락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부모가 자녀 앞의 모든 장애물을 맹렬히 제거하는 ‘제설기 양육’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말하며, 고난을 겪어본 적 없는 젊은 세대에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을 얘기한다. 당장 내가 재직 중인 회사만 봐도, 대학 졸업 후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부모가 회사에 전화해 휴가를 대신 신청한다거나, 우리 아이 힘든 부서에 배치하지 말아달라

는 요구를 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성장과 성숙은 본래 고통과 아픔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해인 수녀님의 시 ‘꽃이 되는 건’에서는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도 사실은 참 아픈 거래”라는 구절을 통해 성숙의 뒤편에 감춰진 고통의 가치를 말한다. 시편 23편 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싱싱한 풀을 먹이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험난한 대이동 경로라고 한다. 이곳을 이겨내고 풀을 먹은 양들은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진다. 역경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통과의례인 셈이다.

자신의 목회 인생을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라고 표현한 총회장 목사님의 간증은, 역경과 고난 없이는 결코 이를 수 없는 가치와 역량이 있음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재다. 질문해보자. 편안함에 길들여져 나약해질 것인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누군가의 말처럼 ‘편안하기를 포기’하고 고통과 역경을 감수하여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말이다. 성도 여러분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

전호정 집사

:: 한국 교회사 ::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 길선주 목사

1869년 3월 15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난 길선주목사는 19세 때부터 산속에 들어가 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와 관성교와 선도 등에서 가르치고 수련했지만 민족을 구원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펏 선교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전도했습니다. 길선주는 진리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 두 명, 문흥준과 김종섭을 마펏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김종섭이 길선주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섭은 길선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길선주는 결국 마음에 번민을 가지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 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인지 알려 주옵소서.” 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서 청아한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탕탕하는 요란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는 순간 하늘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세 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선주는 너무도 무서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린 채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었을 때, 그의 몸은 불덩어리가 된 듯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선주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길선주는 두문불출하고 기도와 성경 말씀에 전력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에게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온 가족

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길선주는 너무 기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길선주는 1898년 30세 때 평양 널다리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널다리교회는 그 이듬해인 1899년에 장대현으로 옮겨졌고, 1900년에는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1901년에는 33세 때 장대현교회 장로로 장립되었고, 1902년 조사(전도사)가 되어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과 유창한 설교, 기도와 성령 충만한 그의 목회 사역은 장대현교회의 급속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몇몇 사람들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1906년부터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황해도 재령에서 길선주 조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1월이 되었습니다.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1,500여 명의 신자들이 장대현교회에 모여 10일 동안 사경회를 가졌습다. 그 사경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장대현교회 예배당에 회중이 차고 넘치도록 모인 사경회가 성령에 휩쓸린 바 되어 회중 가운데 혹은 소리쳐 울고, 혹은 가슴 쳐 통곡하며, 혹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혹은 발을 구르고 자복하며, 혹은 춤을 추면서 찬미하니 소리소리 합하여 소리의 기둥은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기둥같이 하늘로 떠올랐다.” 새벽기도를 인도하던 그는 갑자기 일어나 자기의 죄를 큰 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다. 약 1년 전, 친구가 임종 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 장로, 나

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주시요.’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자기의 사적인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각자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최초 일곱 목사님 중의 한 분으로 안수를 받았고, 장대현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고, 총회 전도국장이 되어 6년간 시무했습니다. 1908년 3월 1일에는 한국교회 역사상 목사로는 처음으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1919년 길선주 목사님은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시다가 2년간 옥고를 치렀는데, 옥중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와 전도에 전념했습니다. 출옥 후에는 전국을 누비며 부흥회를 인도하여 ‘한국의 세례요한’이라 불릴 정도의 탁월한 부흥사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후 그는 30년 여생 동안 전국에서 약 500회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1920년대 김익두 목사, 1930년대 이용도 목사 등과 함께 해방 전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사로 알려졌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불교와 선도의 도사였지만, 29세 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40여 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380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8백여 명을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로 세웠고, 60여 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한국 장로교회 첫 목사요, 최대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한국에서 제일가는 부흥 설교자로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킨 장로교의 아버지입니다.

김종춘 목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자!

저는 신학원에 입학하기 전, 교육학 박사 학위 과정에서 철학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당시 철학 속에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일리(一理)’는 있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眞理)’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나 종교 서적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신 유일무이하고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섬기는 수원교회는 오래전부터 저녁마다 김진 담임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말씀을 소리 내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 중에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구체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꿈이나 이상이 아닌 말씀을 읽는 중에 주셨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명확히 해결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이유가 뛰어난 언어 구사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 목사님께서 은사적인 언어 능력뿐 아니라 정말로 성경 한 권이 몸에 배어 삶과 하나가 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자녀요,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붙든 자는 구원의 확신과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능력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경건의 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회복이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양은정 생도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기도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